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미 증시, ISM 제조업 호조, 관세 부과 연기 소식 등으로 낙폭 축소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3일(월) 미국 증시는 장 초반 트럼프의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리스크로 1%대 하락 출발 했으나, 이후 ISM 제조업 PMI 호조, 멕시코와의 관세부과 1개월 연기 소식 등에 힘입어 낙폭을 축소한 채로 마감(다우 -0.3%, S&P500 -0.8%, 나스닥 -1.2%).

현재 주요국 증시는 딥시크의 파장을 온전히 소화하기도 전에 관세 부과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취약한 2월을 시작하게 된 실정. 일단 아시아 증시 때와 달리 미국 증시에서 장중 미국 정부가 멕시코와 국경수비대 파견을 통해 1개월 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으며, 캐나다의 관세도 1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다행 요인.

그렇지만 트럼프가 "시점은 미정이나 EU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의지는 높게 가져가는 등 관세 부과 대상국가의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 더군다나, "관세로 인한 단기적인 금융시장 변동성은 개의치 않는다" 식의 발언도 증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1월 FOMC 직후 연준의 금리 동결을 비판했다가, 전일에는 "연준의 금리 결정이 적절했다"는 식의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시장 대응 난이도를 높이고 있는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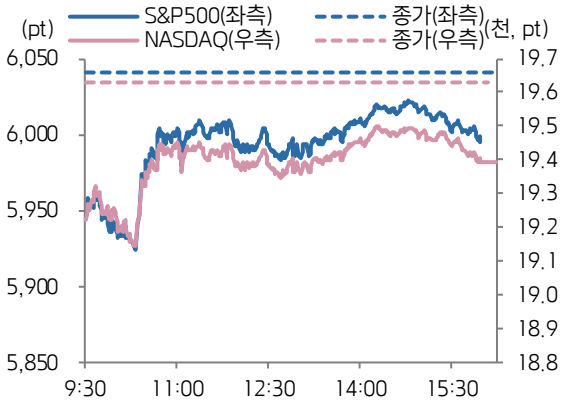
하지만 3일과 같은 증시 급락세가 추가로 출현할 가능성은 낮게 가져갈 필요. 이미 작년 11월 대선 이후 트럼프의 관세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데에 대부분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금융시장 가격에 선제적으로 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 또 트럼프가 외부의 의견을 온전히 수용할 것이라고 보긴 어려워도, 주요 외신과 미국 산업계에서도 그의 관세정책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도 눈 여겨 볼만(ex: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분석 상, 평균 관세율이 기존 3%에서 10%로 높아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미국 내 GDP 감소, PCE 물가 상승, 중국으로의 공급망 재구축로 인한 미국의 리쇼어링 약화 등이 해당).

당분간 트럼프의 관세 관련 뉴스플로우로 증시 변동성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겠으나, 2018년과 같은 중국과의 전면 무역 전쟁과 같은 시나리오를 주가에 반영하는 전략은 지양하는 것이 적절. 현재 관세 부과의 성격은 "관세 부과 발표 -> 해당국가 협상 -> 관세 정책 변경(시점 보류 등)"와 같은 경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결정에 따른 무역분쟁 불안감 확산이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관세 인상 피해주를 중심으로 장중 내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급락 마감(코스피 -2.5%, 코스닥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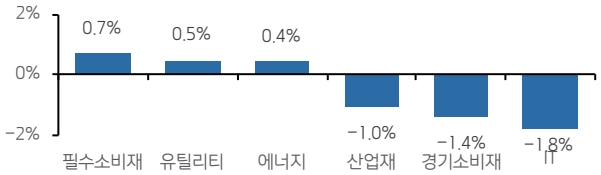
금일에는 전일 낙폭 과대 인식 속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부과 연기 소식 등에 힘입어 반도체, 자동차 등 관세 피해 수출주를 중심으로 반등에 나설 전망. 한국 수출주들의 이익 전망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미국 1월 ISM 제조업 신규주문 지수(52.1 -> 55.1)의 개선 소식도 반등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 또 미국 장 마감 후 팔란티어(+1.5%)가 컨센을 상회하는 4분기 실적 및 가이던스를 제시함에 따라 시간외에서 18%대 내외 주가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 이는 딥시크로 인한 생성된 AI 소프트웨어 내러티브를 유지시켜주는 요인인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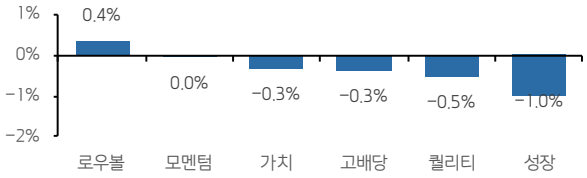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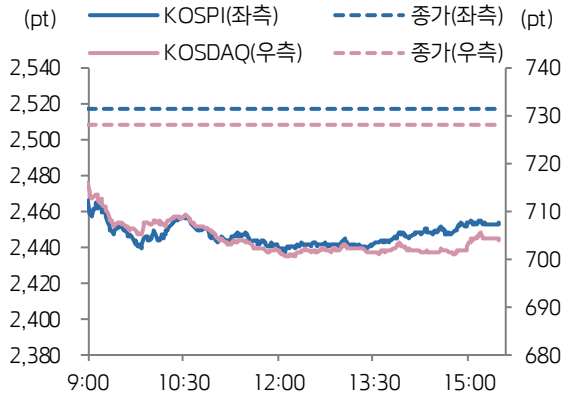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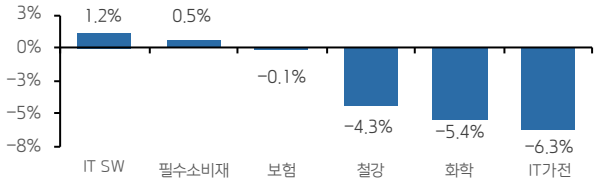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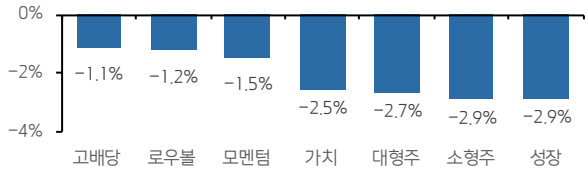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28.01	-3.39%	-8.95%	GM	47.90	-3.15%	-10.08%
마이크로소프트	410.92	-1%	-2.51%	일라이릴리	810.43	-0.08%	+4.98%
알파벳	201.23	-1.37%	+6.3%	월마트	99.54	+1.41%	+10.17%
메타	697.46	+1.2%	+19.12%	JP모건	266.81	-0.18%	+11.88%
아마존	237.42	-0.11%	+8.22%	엑손모빌	107.09	+0.24%	-0.45%
테슬라	383.68	-5.17%	-4.99%	셰브론	149.34	+0.1%	+3.11%
엔비디아	116.66	-2.84%	-13.13%	제너럴일릭트릭	99.54	+1.4%	+10.2%
브로드컴	217.73	-1.6%	-6.09%	캐터필러	361.55	-2.66%	+0.03%
AMD	114.27	-1.45%	-5.4%	보잉	175.87	-0.37%	-0.64%
마이크론	89.92	-1.45%	+6.84%	넥스트에라	71.05	-0.7%	-0.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453.95	-2.52%	+2.27%	USD/KRW	1,462.00	+0.58%	-0.7%
코스피200	324.55	-2.64%	+2.12%	달러 지수	108.35	-0.02%	-0.13%
코스닥	703.80	-3.36%	+3.78%	EUR/USD	1.03	-0.22%	-0.14%
코스닥150	1,182.37	-4.12%	+4.65%	USD/CNH	7.31	-0.14%	-0.35%
S&P500	5,994.57	-0.76%	+1.92%	USD/JPY	154.85	-0.22%	-1.49%
NASDAQ	19,391.96	-1.2%	+0.42%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4,421.91	-0.28%	+4.41%	국고채 3년	2.563	-0.7bp	-3.2bp
VIX	18.62	+13.33%	+7.32%	국고채 10년	2.822	-3.5bp	-4.9bp
러셀2000	2,258.42	-1.28%	+1.27%	미국 국채 2년	4.247	+5bp	+0.5bp
필라. 반도체	4,924.81	-1.82%	-1.11%	미국 국채 10년	4.555	+1.6bp	-1.4bp
다우 운송	15,927.65	-2.33%	+0.2%	미국 국채 30년	4.788	+0.1bp	+0.6bp
상해종합	3,250.60	-0.06%	-3.02%	독일 국채 10년	2.385	-7.5bp	+1.8bp
항셍 H	7,384.11	+0.03%	+1.29%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7,186.74	-0.41%	-1.22%	WTI	73.16	+0.87%	+2.68%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5.96	-1.04%	+1.77%
Eurostoxx50	5,217.91	-1.3%	+6.58%	금	2,857.10	+0.78%	+7.17%
MSCI 전세계 지수	869.04	-0.42%	+3.29%	은	32.53	+0.81%	+11.23%
MSCI DM 지수	3,836.58	-0.44%	+3.47%	구리	430.55	+0.62%	+6.93%
MSCI EM 지수	1,093.37	-0.22%	+1.66%	BDI	735.00	+2.8%	-26.28%
MSCI 한국 ETF	53.38	-1.09%	+4.89%	옥수수	488.00	+1.24%	+6.43%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66.75	+1.3%	+2.77%
비트코인	102,056.17	+5.22%	+8.9%	대두	1,056.50	+1.39%	+4.55%
이더리움	2,801.62	-3.63%	-16.28%	커피	380.90	+0.81%	+19.1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당사는 2월 3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